

<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

※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받아주신 잠언입니다.

1.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심정을 느끼고 깨닫는다.
2.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,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.
3. <기도>하면, 자기 혼도 자기에 대해 깨닫고 육을 따라 기도한다.
4. <기도>하면, 저마다 ‘할 일’ 을 깨닫는다.
5. <기도>하면, ‘자기 죄의 행실’ 을 고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며 행하신다.
6. 모두 열심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, 혼자 기도하며 고생길을 가지 않는다. 고생돼도 ‘기도의 생명길’ 을 가야 된다. 기도해야, 성령님이 감동으로 행하신다.
7. <기도>하면, 육신은 힘들어도 혼과 영은 ‘힘’ 을 얻는다. 또 하나님이 사탄과 악한 자들을 직접 주관해 주신다.
8.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.
9. <기도의 능력>이다. <기도의 표적>이다. 기도가 합당하면,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.

10. 휴거되고 나서 그냥 태만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, 휴거가 점점 시들어 버리는 꽃같이 되고 만다. 저마다 <기도>로 ‘휴거된 영과 육을 온전하게 관리하기’ 다. <기도>로 ‘시대 섭리사의 가치를 깨닫기’ 다.
11.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와 섭리사에 달라진 것들을 깨달아라.
12. 식음을 폐하고 기도한 자들은 응답을 받았고, 태만하게 기도한 자들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게 기도한다.
13.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.
14. <형식의 기도>는 ‘유대종교 바리새인들의 기도’ 다.
15.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, 빠지지 말고 모두 할 때 하자.
16. 기도할 때 중심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면, 생명력이 없다.
17. 기도하면 된다. 그러므로 절대 믿고 기도하여라.
18. 기도 후에는 더 증거하고, 더 담대히 외쳐야 된다.